금융권 지역 인재들에 채용문 넓힌다

올 선발인원 20~30% 지방 출신자 채용

光銀 신입행원도 지역 대학 졸업자 우대

올해 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지역 인재들에게 문호를 확대한다. 선발 인원의 20~30%를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우는 할당제를 도입하고 지방 영업점에 근무할 인원은 해당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는 채용방식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18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선발할 신입 직원 200명 가운데 20%를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지원자에게 할당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역 인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정책적인 배려가 반영됐다"며 "지방 출신 직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5년간 근무하는 인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직원이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지방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지역 소재 영업점에 근무할 인원은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상반기 중 은행창구에서 일하는 텔러직과 텔레마케터를 각각 150명씩 채용하고, 하반기에 신입행원 300명을 선발하는 등 모두 600명을 뽑는다.

금융 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도 지역 인재를 포함한 인턴직원 42명을 채용한다. 인턴기간이 끝난 뒤 이들 중 70~8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채용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시 30%를 지방인재로 채울 예정이다.

광주은행도 40명의 정규직원을 선발키로 하고 31일까지 응시원서를 교부·접수하고 있다. 신규 채용 직원의 직급은 7급으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직원 90% 이상이 지역 대학 출신인 광주은행은 이번에도 지역 대학 졸업자들을 우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200명을 선발한 우리은행은 올해 창구직원 100명을 뽑는 것을 제외하고도 하반기에 200~300명의 신입행원을 충원하는 등 채용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은행 및 금융공기업 채용 계획

회사	채용계획			비고
	구분	채용시기	인원	
국민은행	신입행원	하반기	300명	지방 영업점 지역 출신채용
	텔러직	3월30일~4월6일	150명	인터넷 접수만 가능(www.kbstar.com)
	텔레마케터	4월19일(예정)	150명	〃
기업은행	신입행원	4월2일	200명	20% 지역인재 채용
외환은행	신입행원	상·하반기	각100명	
기술보증보험	인턴직원	3월17일~26일	42명	정규직 전환시 30% 지역 할당
광주은행	신입행원	3월15일~31일	40명	

〈자료:각회사〉

"오늘 하루는 내가 여왕" 18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한국네슬레가 개최한 프리미엄 커피브랜드 '테이스터스 초이스 수프리모' 홍보행사에 참가한 모델들이 '내 생의 가장 향기로운 이벤트'에서 제공될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오는 5월 23일까지 매주 한번 추첨을 통해 최고급 리무진서비스와 호텔 만찬, 스파서비스, 백화점쇼핑 기회를 주는 행사로 동반 1인까지 참가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어음부도율 2년6개월만에 최저

광주·전남 2월 동향

2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이 2007년 9월 이후 2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2월 중 광주·전남 지역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역 어음부도율은 0.23%로 전달(0.25%)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7년 9월(0.19%)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0.35%→0.26%)가 0.09%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남(0.16%→0.19%)은 0.03%포인트 상승했다. 부도금액은 63억5천만원으로 전달(90억3천만원)보다 26억8천만원이 감소했다.

신규 부도업체 수는 10개로 전달(6개)보다 4개 늘었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3개)이 전달보다 2개 감소했지만 제조업(+1)과 건설업(+4)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2월 중 광주·전남지역 신설 법인수는 253개로 전달(293개)에 비해 40개 감소했으며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은 31.6으로 전달의 48.8보다 떨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병원·변호사 등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

내달부터…미발급땐 과태료

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명이 해당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용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며 연간 1천500만원 이내이다. /연합뉴스

로또 4등 당첨금 5만원 고정

빠르면 8월부터 비과세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복권인 로또의 4등 당첨금이 5만원으로 고정되고 복권 판매처라면 어느 곳에서나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를 열고 로또 4등 당첨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로또 1,2,3등 당첨금은 기존처럼 전체 구매액과 당첨자 비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4등은 5만원, 5등은 5천원으로 고정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로또 4등 당첨금이 들쭉날쭉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데다 당첨금 수령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로또 4등의 경우 보통 5만원 중후반 대의 당첨금을 받다 보니 본인 부담금 1천원을 포함해 5만1천원 이하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다보니 비과세로 5만원을 받는 당첨자보다 당첨금은 많지만 실수령액은 더 적게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 새얼굴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

정 준 택 금감원 광주지원장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일 취임한 정준택(50)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은 "지역 금융산업의 건전경영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안정화의 토대를 닦겠다"고 밝혔다.

정 지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는 지원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라며 "소비자 권익 증대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할 지역이 광주, 전북, 제주까지 방대하고 직원들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작지만 큰 조직'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장흥 출신으로 장흥고와 전남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1983년 금감원에 입사,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 금감원 분쟁조정팀장을 지냈다. /윤영기기자 penfoot@